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7. 1. 19(목)	
		작성 · 문의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방진아 / 사무관 심정환 (Tel. 044-200-2058)
* 즉시 사용			

## 내수 진작 위해 ‘겨울철 외국인 관광객특수’ 살린다

- 코리아그랜드 세일(1.20~2.28), 동계스포츠 체험 등 ‘지갑 여는 이벤트’ 풍성하게 준비
- 중국 춘절(1.27~2.2) 계기 맞춤형 프로그램·마케팅 등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
- AI 의심신고 나흘 연속 0건, 황 권한대행, “설명절 대비, 계속 경각심 갖고 대응”

□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9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‘제10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’를 개최하였다.

\* 참석 : 경제·사회부총리, 외교·행자·농식품부 장관, 국조실장, 문체부 2차관 등

□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, 투자촉진과 함께 내수 진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,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‘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’을 논의하였다.

○ 먼저, 겨울철 특수를 앞두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‘코리아그랜드 세일’\*(1.20~2.28)과 평창올림픽 관련 행사(G-1년 페스티벌 등)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\*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쇼핑·문화축제(‘11~), 금년도 350여개 기업 참여

- 이를 위해 △쇼핑·숙박·교통 등 특별할인 △통역 등 관광편의 제고 △스키 등 동계스포츠 체험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높이고 소비 지출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또한, 최근 **외교현안**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국 관광의 주요 고객인 **중국 관광객**(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7%) **감소**에 대한 **우려**도 있으나,
  - 이번 중국 춘절(1.27~2.2) 기간중에도 전년보다 4.9% 증가한 **14만명**이 **방한**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다양한 **춘절 행사\*** 등을 통해 **더욱 많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**하도록 힘쓰기로 하였다.

\* 주요 관광거점내 춘절 환대행사(인천공항, 명동) /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이벤트 등

- 외국인들이 **부당한 피해나 불편**없이 **안심**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무자격가이드, 바가지 요금 등 **불법행위**를 **집중 단속**하고, 중국의 저가 단체상품에 대한 **모니터링**(쇼핑 강요 등)도 **강화**할 계획이다.
- **황교안 권한대행**은 “**문화관광 강국**으로 도약하기 위해 **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**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을 당부하면서,
  - “**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**을 개발하여 일본·동남아시아·유럽 등으로 시장을 **다변화**하고, **전통문화·경제성장 모델** 등 **한국만의 매력**을 보여줄 수 있는 **관광콘텐츠**를 **발굴·육성**하는 한편, **교통·숙박 인프라 확충, 불친절 문제 개선** 등을 통해 **관광품질**을 **향상**시켜서 ‘**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**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지난해 11.16일 AI 첫 발생 이후 그간의 **총력 대응**으로 최근 **AI 의심 신고건수\***가 **크게 줄어든 상황**이나,

\* 지난 1주일(1.12~18)간 의심신고 총 3건, 이중 최근 나흘 연속(1.15~1.18) 0건

- 정부는 **설명절 귀성객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, 철새 이동** 등으로 인한 **확산 우려**도 적지 않기 때문에 **경각심**을 유지하고 **맞춤형 방역과 예방조치**를 **빈틈없이 추진**하기로 하였다.
- 또한 황 권한대행은, “**설을 맞는 농가들의 어려움**을 **덜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지원**을 **최대한 신속하게 추진**할 것”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.